논어 14편 헌문 38장 · 원문·풀이

公伯寮愬子路於季孫，子服景伯以告，曰：「夫子固有惑志於公伯寮，吾力猶能肆諸市朝。」子曰：「道之將行也與，命也；道之將廢也與，命也。公伯寮其如命何？」

독음 · 공백료소자로어계손 자복경백이고 왈 부자고유혹지어공백료 오력유능사저시조 자왈 도지장행야여 명야 도지장폐야여 명야 공백료기여명하

쉬운 풀이(요약) · 참소한 공백료를 처벌하겠다는 말에 공자는 도가 행해지거나 폐해지는 것은 명이니 그가 어찌 명을 바꾸겠느냐고 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公 공변될 공 공 / 伯 맏 백 백 / 寮 벼슬아치 료 료 / 愬 고할 소 소

子 아들 자 / 路 길 로 로 /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 季 끝 계 계

孫 손자 손 손 / 服 옷 복 복 / 景 별 경 경 / 以 써 이 이

告 알릴 고 / 曰 가로 왈 / 夫 지아비 부 부 / 固 굳을 고 고

有 있을 유 / 惑 미혹할 혹 혹 / 志 뜻 지 지 / 吾 자기 오 오

力 힘 력 력 / 猶 어미 원숭이 유 유 / 能 능할 능 능 / 肆 방자할 사 사

諸 모든 제 제 / 市 저자 시 시 / 朝 아침 조 조 / 道 길 도 도

之 갈 지 / 將 장차 장 장 / 行 다닐 행 행 / 也 어조사 야

與 너울너울할 여 여 / 命 목숨 명 명 / 廢 폐할 폐 폐 / 其 그 기

如 같을 여 여 / 何 어찌 하 하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